

2015. 7. 13. ~ 7. 19. 주간

42
VOL

전남농업정보

■ 주간 기상전망

■ 농축산물 재배·출하·가격 동향

배추·당근 재배 동향 및 과일·과채 가격 동향

■ 전남 시·군 농정 동향

이낙연 전남지사, 농촌의 새바람 장흥군 청년
창업농가 방문

■ 농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인삼제품 CODEX 세제규격 채택, 세제 수출길 활짝

■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여름철 고온기 벼 병해충 주의하세요!

■ 정책동향

국제농업박람회 100일 앞...성공 결의

■ 해외 농업정보

러시아 밀가격, 수출관세에 대한 우려로 보험세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기상청)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며 강수량은 평년(4~14mm)보다 많음

☼ 농산물 재배 동향(농촌경제연구원)

- 고랭지배추 재배의향면적 작년 대비 15% 감소
- 고랭지당근 재배면적 작년보다 18% 증가

☼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농촌경제연구원)

▶ 과 일 : 포도, 사과

- 포 도 : 7월 캠벨얼리 가격은 전년보다 낮은 상품 2kg에 7천8천원 전망
- 사 과 : 7월 가격은 전년보다 낮은 상품 15kg에 4만 3천4만 6천원 전망

▶ 과 채 : 수박, 참외, 토마토

- 수 박 : 수박 7월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작년보다 높은 상품 1kg에 1,400~1,600원 전망
- 참 외 : 7월 참외 가격은 작년보다 높은 상품 10kg에 18,000~21,000원 전망
- 토마토 : 토마토 7월 가격은 작년보다 높은 상품 10kg에 11,000~14,000원 전망

❁ 전남 시·군 농정 동향(데일리저널, 전라닷컴)

- ▶ 이낙연 전남지사, 농촌의 새바람 장흥군 청년창업농가 방문
- ▶ 영암군,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 실시
- ▶ 강진 찰옥수수 수확 '한창'
- ▶ 장성군, 달콤한 캠벨얼리 포도 '첫 수확'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농림축산식품부)

- ▶ 인삼제품 CODEX 세계규격 채택, 세계 수출길 활짝!
- ▶ 국산 원재료로 만든 농협 농식품, 미국시장 진출 본격 가동
- ▶ 충남농산물 수출확대 총력전

❁ 농업기술정보(농촌진흥청)

- ▶ 여름철 고온기 벼 병해충 주의하세요!
- ▶ 한우 몸무게 추정하는 프로그램 나왔다
- ▶ 벼 품종별 특성 파악 애로 해결 한 번에
- ▶ 장마철 농작물 관리기술 요령
- ▶ 태풍에 대비하는 자세!

❁ 정책동향(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부)

- ▶ 국제농업박람회 100일 앞...성공 결의
- ▶ “금년 상반기 농지연금 가입 크게 늘어”
- ▶ 국내쌀-수입쌀 혼합 유통 강력 단속한다
- ▶ 농특산물 가공 체험 확대로 농촌관광 활성화
- ▶ 양파 「경계경보⇒심각경보」, 마늘 「경계경보」 발령

❁ 해외 농업정보(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러시아 밀가격, 수출관세에 대한 우려로 보합세
- ▶ 해외 곡물시장 시황(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선물가격은 달러화 강세와 미국 밀 시장경쟁력이 약세를 보이며 하락 마감
 - 옥수수 선물가격은 달러화 강세와 미국 옥수수 등급이 기대보다 우수하게 평가될 것이라는 기대에 이틀 연속 하락 마감
 - 대두 선물가격은 세계경제에 대한 우려가 상품 및 주식과 함께 대두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며 1주일래 최저치를 기록하며 하락 마감

❁ 고소득 농업사례(광남일보, 남도일보)

- ▶ 전남 유기농 선도농가를 찾아서-함초롬이슬머금은매실 이옥분 대표
- ▶ 뉴질랜드서 역이민, 울포서 구찌빵 농사 노한범씨

❁ 사업신청 안내(전남도)

▶ 2015년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신청

- 신청기간 : 6. 18. ~ 8. 17.(2개월)
- 신청대상 품목
 - 피해보전직불금(9개) :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시설포도, 닭고기, 포도
 - 폐업지원금(5개) : 체리, 노지/시설포도, 닭고기, 밤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신청대상 품목을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자

▶ 2016년도 주요 산림소득사업 공모 신청

- 기 간 : 7. 15. ~ 9. 4.(52일간)
- 공모규모 : 3개 사업/84개소/506억원(국비 209, 지방비 119, 자부담 178)
 - 유통센터 6개소/66억원, 생산단지 60개소/350억원, 복합경영단지 18개소/90억원
- 신청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 농업회사 등),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등)
- 규 모 : 50여개 부스(도별 각 25개씩, 시군, 농협 등 단체)

▶ 제2회 농촌재능나눔 홍보공모전 작품 접수

- 공모주제 : 농촌재능나눔을 통한 농촌공동체 활성화
- 공모기간 : 2015년 6월 15일 ~ 9월 30일
- 공모분야 : 동영상(UCC), 사진
- 참가자격 : 일반인 및 대학생
- 접수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www.smilebankcontest.co.kr) 접수
- 시상규모 : 26점(동영상 9점, 사진 17점)
- 시상식 : 2015년 11월

✿ 주요 농축산물 가격 정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5. 7. 13.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7/13)	전주 (7/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 작 물	쌀(일반계)	20kg	39,800	39,800	39,800	42,600	41,200	↓ 6.6	↓ 3.4
	콩(백태)	35kg	139,000	139,000	139,000	142,000	197,233	↓ 2.1	↓ 29.5
	고구마(밤)	10kg	37,600	37,600	30,200	33,500	34,447	↑ 12.2	↑ 9.2
	감자(수미)	20kg	26,600	26,000	32,250	22,500	21,993	↑ 18.2	↑ 20.9
채 소 류	배추(월동)	1kg	700	700	770	550	638	↑ 27.3	↑ 9.7
	양배추	10kg	7,600	7,200	10,950	5,325	4,914	↑ 42.7	↑ 54.7
	오이(다다기계통)	15kg	27,000	27,333	23,917	29,083	36,067	↓ 7.2	↓ 25.1
	애호박	8kg	10,200	12,400	10,050	9,200	15,043	↑ 10.9	↓ 32.2
	토마토	10kg	19,600	16,800	16,500	14,150	16,953	↑ 38.5	↑ 15.6
	무(봄)	1kg	1,060	830	683	505	634	↑ 109.9	↑ 67.2
	당근	20kg	30,600	30,800	29,600	34,400	33,160	↓ 11.0	↓ 7.7
	건고추(화건)	60kg	820,000	820,000	820,000	694,500	792,167	↑ 18.1	↑ 3.5
	풋고추	10kg	38,800	34,000	40,800	36,550	36,887	↑ 6.2	↑ 5.2
	마늘(난지)	10kg	48,400	48,000	37,800	33,750	38,850	↑ 43.4	↑ 24.6
	양파	1kg	1,100	1,110	818	445	745	↑ 147.2	↑ 47.7
	대파	1kg	2,300	2,240	2,490	1,080	1,428	↑ 113.0	↑ 61.1
	파프리카	5kg	14,000	14,600	16,150	15,000	17,623	↓ 6.7	↓ 20.6
	방울토마토	5kg	12,600	11,600	14,350	10,000	11,117	↑ 26.0	↑ 13.3
	수박	1개	15,000	13,800	12,850	15,000	14,613	-	↑ 2.6
과 일 류	사과(후지)	15kg	66,800	67,800	67,800	93,000	82,287	↓ 28.2	↓ 18.8
	배(신고)	15kg	39,600	39,600	39,700	80,250	65,600	↓ 50.7	↓ 39.6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7/13)	전주 (7/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32,000	532,000	532,000	532,500	556,833	↓ 0.1	↓ 4.5
	들깨	45kg	420,000	420,000	420,000	440,500	356,633	↓ 4.7	↑ 17.8
	새송이버섯	2kg	8,000	8,200	8,300	8,000	7,910	-	↑ 1.1
축 산 물 (소 매 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6,898	6,956	6,551	6,527	6,175	↑ 5.7	↑ 11.7
	돼지고기(삼겹살)	100g	2,240	2,197	2,340	2,218	2,069	↑ 1.0	↑ 8.3
	닭고기	1kg	5,818	4,839	5,169	5,322	5,774	↑ 9.3	↑ 0.8
	계란(특란)	10개	1,937	1,898	1,943	1,931	1,792	↑ 0.3	↑ 8.1
	우유	1리터	2,548	2,548	2,548	2,548	2,307	-	↑ 10.4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5. 7. 13.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율(%)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4,875 천원	4,879 천원	4,430 천원	↓ 0.1	↑ 10.0
	거세	6,518 "	6,295 "	5,505 "	↑ 3.5	↑ 18.4
송아지 (6~7월)	암	2,573 "	2,556 "	1,986 "	↑ 0.7	↑ 29.6
	수	3,118 "	3,145 "	2,766 "	↓ 0.9	↑ 12.7
육우(600Kg)		3,392 "	3,500 "	2,737 "	↓ 3.1	↑ 23.9
젖소수송아지(7일령)		250 "	238 "	17 "	↑ 5.0	↑ 1370.6
돼지(110kg)		463 "	445 "	418 "	↑ 4.0	↑ 10.8
육계(원/kg)		1,368 원	1,422 원	1,446 원	↓ 3.8	↓ 5.4
계란(원/특란10개)		1,214 원	1,221 원	1,397 원	↓ 0.6	↓ 13.1
오리(원/kg)		2,333 원	2,333 원	3,342 원	-	↓ 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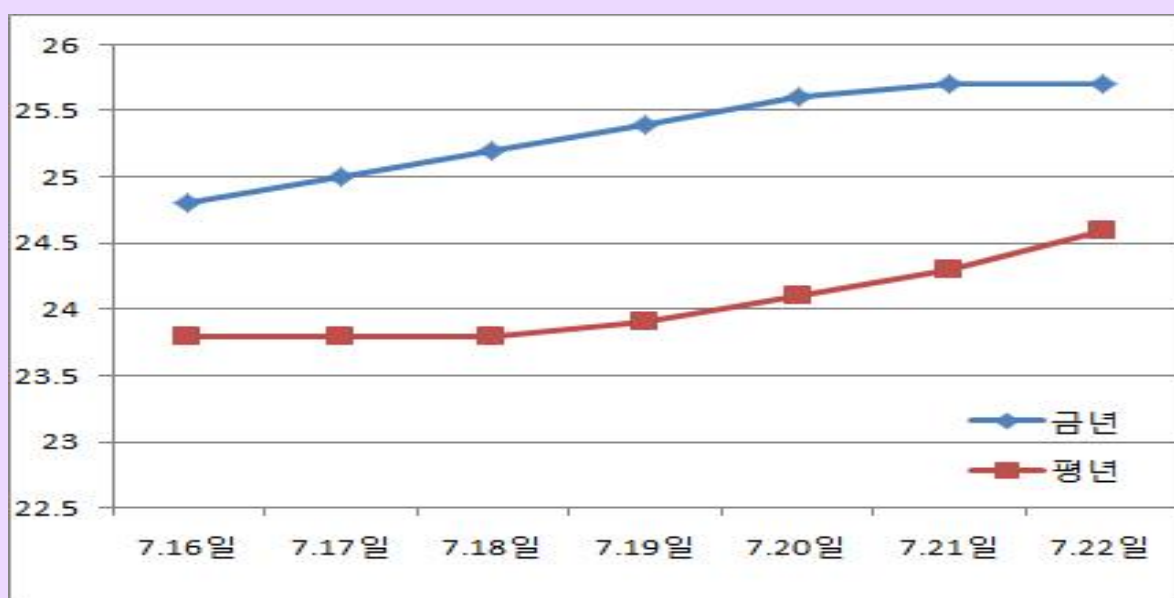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1. 주간 기상전망

(기상청 중기예보 /목포 기준)

일 별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날 씨 (강수량 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균(계)	25.3	24.0	1.3	28.6	28.9	-0.3	22.6	22.8	0.2	
7. 16.(목)	24.8	23.8	1	30	28.3	1.7	22	22.4	0.4	맑음
7. 17.(금)	25	23.8	1.2	28	28.5	-0.5	22	22.5	0.5	비 (10mm)
7. 18.(토)	25.2	23.8	1.4	26	28.8	-2.8	22	22.6	0.6	비 (10mm)
7. 19.(일)	25.4	23.9	1.5	29	29	0	23	22.8	0.2	맑음
7. 20.(월)	25.6	24.1	1.5	29	29.2	-0.2	23	22.9	0.1	맑음
7. 21.(화)	25.7	24.3	1.4	29	29.2	-0.2	23	23	0	맑음
7. 22.(수)	25.7	24.6	1.1	29	29.3	-0.3	23	23.1	-0.1	맑음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평균 기온(℃)>

2. 농산물 재배 동향

배추·당근 재배 동향

□ 고랭지배추 재배의향면적 작년 대비 15% 감소

- 고랭지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작년 및 평년 대비 각각 4%, 5% 감소한 4,912ha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월별 정식의향면적은 가뭄으로 정식이 지연되면서 6월 정식면적이 전월 조사치(5월 20일)보다 감소하였고 7~8월 정식의향면적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고랭지배추 추정단수는 5~6월 지속된 가뭄으로 작년보다 11% 감소한 3,380kg/10a로 조사되었다.
- 고랭지배추 작황은 6월 하순 강우로 다소 회복되었지만 지속된 가뭄으로 작년보다 부진한 상황이며 출하 시기도 지연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추정단수를 적용한 고랭지배추 추정생산은 16만 6천 톤으로 작년보다 15%, 평년보다 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고랭지당근 재배면적 작년보다 18% 증가

- 고랭지당근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18% 증가한 97ha로 추정된다. 추정면적에 평년 단수를 적용한 고랭지당근 생산량은 2,700여 톤으로 작년보다 15% 많지만 평년보다는 36%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 평창(진부, 대관령), 강릉 지역에서 5월 중·하순 가뭄으로 당근을 재파종하면서 일부 농가가 무로 작목 전환을 해 전월 조사치(117ha)보다 재배면적이 감소하였다.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3.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

과 일 : 포도, 사과

○ (포 도)

- 7월 캠벨얼리 가격은 전년보다 낮은 상품 2kg에 7천~8천원 전망
- 7월 거봉 가격은 상품 2kg에 1만~1만 1천원으로 전년보다 다소 낮을 듯

○ (사 과)

- 7월 가격은 전년보다 낮은 상품 15kg에 4만 3천~4만 6천원 전망

과 채 : 수박, 참외, 토마토

○ (수 박)

- 수박 7월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작년보다 높은 상품 1kg에 1,400~1,600원 전망

○ (참 외)

- 7월 참외 가격은 작년보다 높은 상품 10kg에 18,000~21,000원 전망

○ (토마토)

- 일반토마토 7월 가격은 작년보다 높은 상품 10kg에 11,000~14,000원 전망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4. 전남 시·군 농정동향

■ 이낙연 전남지사, 농촌의 새바람 장흥군 청년창업농가 방문

- 한되, 삼광버섯영농조합법인 등 청년 창업현장 2개소 방문 -

-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농촌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청년사업가를 격려하기 위해 이낙연 전라남도지사가 6일 오후 장흥군을 찾았다.
- 이충식, 김광준 도의원, 최경주 전남농업기술원장과 함께 장흥군을 찾은 이 지사 일행은 김성 장흥군수와 지역 농촌청년사업가 사업현장 2개소를 방문했다.
- 이날 방문한 사업현장은 한되(대표 박민재)와 삼광버섯영농조합법인(대표 차주훈)으로 2곳 모두 30세 동갑내기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 이 지사는 해당 사업장을 차례로 방문해 농업현장을 시찰하고 창업추진현황청취 및 대화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 농촌창업지원을 통해 2013년 사업을 시작한 한되 박민재 대표는 유기농 쌀을 이용해 쌀과자, 시리얼, 누룽지 등의 가공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 주로 SNS와 온라인 마켓에서 고객을 확보하고 아이엄마들의 인터넷 카페에 체험단을 운영하는 등 2015년 예상 매출액만 4억 원으로 보고 있다.
- 2014년 창업한 삼광버섯영농조합법인 차주훈 대표는 어린이를 위한 버섯 체험키트를 개발해 직거래·온라인 고객 4천명, 체험고객 1천명을 확보하고 있다.
- 특히 '자라라'라는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 단순히 버섯과 종균 생산을 넘어 버섯 체험 교육 농장화를 실천하고 있다.
- 이낙연 지사는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실현을 위해 농촌에 돌아온 청년들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김성 장흥군수는 “청년 사업가들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남도와 협력하여 각종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출처 : 데일리저널

■ 영암군,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 실시

- 기술수요가 필요한 실수요자 중심의 현장교육으로 진행 -

-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오는 7월 7일부터 21일까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주민 수요자 맞춤형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한다.
- 이번에 실시되는 현장 영농기술교육은 11개 읍면 66개 마을의 3천여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읍면사무소, 마을회관이나 유선각 등 마을현장에서 군 농업기술센터 전문지도사가 직접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 현장 교육에서는 우렁이 농법 등 친환경 벼농사와 고추, 참깨 등의 밭농사, 과수 등 농업전반에 대해 작물의 생육단계에 맞는 핵심기술 교육과 함께 농업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농업인과 한 자리에 모여 좌담형식의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 특히, 기상이변 등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배요령, 국내외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기술, 농업정보 등도 제공하는 한편 농약안전사용 교육으로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안전을 위한 교육의 장을 만들 예정이다.
-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는 메르스 확산 예방을 위해 영암군보건소 협조로 전 교육장에 인력 및 장비를 동원하여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기술수요가 필요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출처 : 전라닷컴

■ 강진 찰옥수수 수확 ‘한창’

- 당도 높고 특유의 쫄깃함 일품 -

- 전남 강진군에서 여름철을 맞아 찰옥수수 수확이 한창이다.
- 6일 강진군에 따르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찰옥수수는 70ha 면적에서 700여t을 생산해 7억원의 농가소득을 기대하고 있다.
- 강진의 풍부한 일조량과 높은 기온은 열대작물인 옥수수 재배에 적합해 강진 찰옥수수는 특유의 쫄깃함이 일품이다.
- 특히 전국민이 선호하는 미백2호와 미흑찰은 껍질이 얇고 당도가 높아 맛이 담백하고 쫄득쫄득하다.
- 군은 농가가 고품질의 찰옥수수 재배할 수 있도록 최소 3년마다 10a당 300kg석회를 시용하며 매년 유기물을 공급하고 있다.
- 마량면 연동마을 농가 우현수씨는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이 옥수수를 재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며 “옥수수 파종시 일손이 부족한데,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찾아 주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 이에 농업기술센터 구영서 연구개발과장은 “고추 터널재배형 부직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농가의 일손을 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강진군에서 주로 재배하는 미백2호 미흑찰은 11월말~12월 초에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신청하면 보급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12일부터 2월 6일까지 1kg당 2만5천원에 공급했다.

* 출처 : 남도일보

■ 장성군, 달콤한 캠벨얼리 포도 ‘첫 수확’

- 캠벨얼리 포도 수확 한창, 도내서 가장 빨라..일반 포도보다 2개월 앞당겨 수확 -

- 청정지역인 전남 장성에서 생산된 캠벨얼리(Campbell early) 포도가 높은 당도로 소비자의 입맛을 유혹하고 있다.
- 군은 황룡면 시설하우스에서 조기 재배된 캠벨얼리 포도가 본격 출하돼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 캠벨얼리 포도는 껍질이 잘 벗겨지고 과즙이 많이 나오는 품종으로, 군은 올해 1월부터 무가온(無加溫) 재배기술을 투입해 일반 노지 포도 보다 약 2개월 가량 수확기를 앞당기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전남 도내에서 수확이 가장 빨랐다.
- 생산된 포도는 농협 공선출하회의 엄격한 선별 과정을 거쳐 출하되고 있으며, 광주 수완지구 하나로클럽과 목포 등 전남 일선학교 급식으로 납품되고 있다.
- 군은 민선 4기인 지난 2008년부터 ‘장성포도명성되찾기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총 사업비 28억원을 투입해 조기재배 체계확립과 품질향상 기술보급, 완전비가림 시설 확대, 유통개선 및 브랜드화 등을 지원했다.
- 또한, 노동력 절감을 위한 무동력 레일식 운반장치 및 탐프루트 생산 기준에 맞는 포도생산을 위해 최고품질 과실생산 시범사업 추진하는 등 명품포도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지난달 26일 농가를 방문해 현장대화를 가진 유두석 군수는 “민선 4기 때 계획한 사업의 이제야 성과로 맺어진 것 같아 뿌듯하다”며, “농가의 땀과 노력의 결실인 최고품질의 장성포도가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 및 판로 확보에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장성군은 현재 184농가가 87ha에서 연간 1,100톤의 포도를 생산하고 있다.

* 출처 : 전라닷컴

5. 농림축산식품 수출입동향

■ 인삼제품 CODEX 세계규격 채택, 세계 수출길 활짝!

-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서 우리 인삼 전세계 수출 활성화 기대 -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6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38차 CODEX*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인삼제품 규격이 최종 심의를 통과하여 세계규격으로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 CODEX : 소비자 건강보호 및 식품의 공정한 무역을 보장할 목적으로 FAO와 WHO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로 CODEX 규격은 회원국에 대한 권고기준이며, 국제교역시 공인기준으로 적용됨

- 당초 목표였던 2017년 인삼제품 세계규격 등재 계획보다 2년을 앞당긴 쾌거를 이루어 냈으며, 이 번 총회의 규격 최종 채택을 통해 우리나라가 인삼 종주국으로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측면 등에서도 가장 앞선 국가임을 다시 한 번 국제적으로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인삼제품이 세계규격으로 등재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등재된 김치를 포함하여 2개의 CODEX 세계규격을 보유하게 되었다. 고추장, 된장은 이미 아시아 지역규격으로 2009년에 등재된 바 있다.
- 인삼제품의 CODEX 세계규격 등재는 세계규격화를 추진한 지 15년 만에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연구원 등 산학관연의 협조하에 이루어낸 어렵고도 긴 여정의 산물이다. 인삼제품 CODEX 규격화를 제안할 2000년 당시만 해도 인삼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간주됐었다.
- 그동안 각 국 대표들과의 개별 접촉을 통한 꾸준한 이해와 설득으로 2009년 아시아 지역규격으로 등재되었으며, 이번에 186개 전체 회

원국이 참석하는 총회에서 세계규격으로 채택됨으로써 국제적으로 명실상부한 '식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 아울러, CODEX 규격은 인삼에 대한 규정이 없는 대다수 국가들에게 인삼을 '식품'으로 판단하는 국제지침서가 될 수 있어, 향후 인삼 소비시장이 크게 확대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 최근 수년간 인삼제품 수출대상국 수는 70개국 내외로 정체되어 있으며 홍콩, 중국, 일본, 대만, 미국 등 상위 5개국에 편중(86%, 2014년 수출액 기준)되어 있어 수출국 다변화가 시급한 상황에 있다.

- 실제로 식품교역 시장에서 식품과 약품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약품의 경우 수입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각종 비관세 장벽이나 불공정 거래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반면, 식품은 약품에 비해 다양한 형태의 제품 공급이 가능하고 통관이나 관세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한 입장을 갖는다.

- 따라서, CODEX 세계규격화를 통해 거둔 가장 큰 수확은 인삼을 의약품으로 간주하던 유럽과 중남미, 그리고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을 포함한 전 세계시장으로 인삼제품을 식품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 길이 열린 것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 번 채택된 인삼제품 세계규격은 식품으로서 세부기준을 규정한 세계 유일의 국제공인문서이며, 일부 국가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수출국을 다변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면서

- “인삼제품의 세계규격을 계기로 새로운 시장 개척, 수출경쟁력 제고를 통해 인삼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국산 원재료로 만든 농협 농식품, 미국시장 진출 본격 가동

- 우리밀 냉면·신안 소금·국산콩 두유, 미 동부지역 첫 공급 -

- 농협경제지주(주)가 국산 원재료로 만든 농협 농식품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첫 사업으로, 우리밀 냉면·신안 소금·국산콩 두유·국산콩 유부 등 4종의 농협 농식품을 미국으로 수출했다.
- 지난달 27일에 선적된 제품은 뉴욕과 메릴랜드, 뉴저지, 필라델피아를 비롯한 미국 동부지역 내 롯데프라자 13개 매장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롯데프라자는 교민은 물론 현지 소비자도 이용하는 유통매장인만큼, 농협은 이번 수출이 우리 전통식품의 대미 수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농협경제지주 식품유통국 관계자는 “수출 상품들의 판매 추이와 현지 소비자 선호도 분석을 바탕으로 수출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미국의 다른 유통채널을 모색하는 한편, 중국을 비롯한 수출시장 다변화에도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출처 :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 충남농산물 수출확대 총력전

- 충남농협수출협의회 전략회의...올 목표 2500만달러 달성 주력 -

- 품목 다양화·전문 공선회 육성...유럽·중동 등 해외시장 개척 -

- 충남의 수출농협들이 하반기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고삐를 쥔다.
- 충남농협지역본부(본부장 조권형)와 충남농협수출협의회(회장 김태영 청양 정산농협 조합장)는 3일 보령 오천농협(조합장 박윤규)에서 협의회 소속 18명의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5 하반기 수출확대 추진 전략회의’를 가졌다.
- 이날 전략회의를 긴급 소집한 이유는 6월 말 기준 전체 농협의

총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 성장한 데 반해 충남은 48.6%의 역조를 보이며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 조권형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주력 품목인 배·인삼·화훼 등에서 엔저현상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와 저가 중국배의 미국시장 진출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며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공격적인 수출 추진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 김태영 회장도 “충남의 경우 품목은 배·화훼·인삼, 국가별로는 중국·대만·미국·일본, 농협별로는 천안배원예농협 등 7개 농협이 전체 수출 실적의 76%를 점유하고 있다”며 “하반기 수출확대에 모든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전략회의에서는 수출농산물 기반강화 등 장·단기 세부추진계획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 우선 수출연합사업을 통한 소량 다품목 수출확대 방안이 제시됐다.
- 일테면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시장 진출 방식처럼 거점산지유통 센터(APC)에 배·사과·오이·고구마 등 여러 품목을 모아 1개의 컨테이너로 운송해 참여농협을 늘리면서 물류 효율성도 높이는 것이다.
- 품목 다양화를 위해 토마토·감자·깻잎 등을 신규 수출농산물로 발굴하는 동시에 수출 전문 공선출하회 30개소와 수출 전업농 200명 육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 해외시장 개척활동은 지난해 러시아·프랑스·괌에 이어 올해 유럽·중동 등으로 넓혀 나가고 해외 판촉전 참가, 수출시장 동향 파악을 위한 해외시장 조사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 충남도, 각 시·군 등과의 협력사업 강화로 수출물류비와 포장재 지원, 해외 공동마케팅 등 수출보조사업을 적극 활용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 장기적으로는 배·밤을 대상으로 생산, 상품화, 수출마케팅 등 수출 창구를 단일화하는 품목별 연합수출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또 1백만달러 이상 수출농협 8곳의 총 실적을 1600만달러에서 3200만달러로 높이고, 50만달러 이상 수출농협도 5개소에서 10개소로 늘리는 등 수출 선도농협을 중점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 박윤규 조합장은 “올해 충남농협의 수출의지 목표인 2500만달러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하반기에는 수출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모든 조합장들이 의견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 출처 : 농민신문

6. 저비용 · 고효율 농업기술정보

■ 여름철 고온기 벼 병해충 주의하세요!

- 벼멸구 등 주요 병해충 수시 예찰 통해 조기에 방제해야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최근 고온 다습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벼 병해충 발생이 늘 것으로 예상돼 병해충 예찰·방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 올해는 고온성 비래 해충인 벼멸구, 흰등멸구, 흑명나방과 병해로는 잎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흰잎마름병이 잦을 것으로 우려된다.
- 벼멸구, 흰등멸구, 흑명나방은 여름철 중국 남부지방에서 기류를 타고 날아와 피해를 주는 해충이다. 이들은 초기 방제가 중요하므로 피해 잎이 발견되는 즉시 적용 약제를 뿌려야 한다.
- 잎도열병은 거름기가 많은 논에 비가 자주 올 경우 쉽게 발병하는데, 병무늬가 생기면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있어 수시로 예찰해 방제를 실시한다.
- 도열병에 약한 ‘호평벼’, ‘일품벼’와 복합내병성 품종이지만 지난해 나주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해 문제가 됐던 ‘새일미벼’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 잎집무늬마름병은 벼 포기의 밑동인 잎집에서 곰팡이균에 의해 검은 무늬가 생기면서 발생한다. 병 방제를 위해서는 중간 물 떼기를 잘 해주고 병든 줄기가 20% 이상 나타나면 적용 약제를 뿌려주면 된다.
- 물을 통해 전염되는 흰잎마름병은 7월 중순~수확기까지 잎의 상처나 기공을 통해 병원균이 침입해 발병한다.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후에 발생이 증가한다. 또,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논은 반드시 깨끗한 물로 걸러대기를 하고 예방 위주로 방제한다.

- 벼줄무늬잎마름병은 애멸구에 의해 전염되는 바이러스병으로 논에 애멸구가 발생 하면 즉시 적용 약제를 뿌려줘야 한다.
- 농촌진흥청 작물기초기반과 이봉춘 박사는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를 위해 지속적인 예찰 활동을 할 것이며, 농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벼 병해충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한우 몸무게 추정하는 프로그램 나왔다

- 사육방법, 성별, 월령 등에 따른 효율적 사양 관리 기능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한우 사육 방법과 성별, 월령(나이) 등에 따라 몸무게를 추정하는 ‘한우 표준 체중 계산기’ 프로그램(엑셀)을 개발했다.
- 한우 몸무게는 일일사료급여량과 출하 시기 결정 등의 사양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항목이다.
- 실제 사양 관리 지침(프로그램1))에 따르면, 번식소와 처녀소(미경산) 비육, 경산 암소 비육, 거세우 비육 시 사료급여량은 각 개체 체중의 일정 비율을 먹이도록 돼 있다.
- 그러나 소저울(우형기)을 갖고 있는 농가가 많지 않고, 있더라도 소에 고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울로 유도해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 그래서 대부분 목표 체중에 이르러 출하하는 것이 아니라 살찐 정도를 눈으로 가늠해 출하 시기를 결정한다. 이는 출하 개체의 균

일도를 높일 수 없고, 체중에 따른 사양 관리는 물론 효율적 축군 관리도 힘든 상황이다.

- 농촌진흥청은 한국종축개량협회와 함께 한우연구소 보유축 자료, 한국종축개량협회의 능력 평가와 등록 자료, 각도 축산연구소와 지역 축협 등의 체중 측정 자료로 한우의 성장 곡선을 추정, 엑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www.nias.go.kr)→연구활동→농가활용프로그램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농가는 프로그램에 키우는 소의 사육 방법(번식우, 비육 여부 등)과 월령, 성별을 입력하면 표준 체중을 확인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권응기 한우연구소장은 “프로그램이 한우의 월령을 기준으로 평균 체중을 예측하는 것이어서 개체별로는 평균 대비 10%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이점에 주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벼 품종별 특성 파악 애로 해결 한 번에

- 도 농기원, 총 120개 품종 생육 비교 품종전시포 운영 -

-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은 벼 품종전시포를 조성해 도내에서 재배 중인 벼 품종의 주요 특성 파악과 재배적 문제점 해결을 위한 현장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벼 품종전시포에 전시된 품종은 심은 지 100일 만에 수확할 수 있는 백일미와 밥맛이 우수한 해담쌀, 흰잎

마름병에 강한 안백, 쌀눈이 매우 큰 눈큰흑찰1호 등 신품종을 비롯한 최고품질 벼 120개 품종이다.

- 품종전시포에는 파종량과 결주 발생에 따른 생육 및 수량을 파악할 수 있는 비교 포장도 조성해 농가의 이해를 돕고 있다.
- 지난해에는 도내 쌀연구회, 농촌지도사회, 각 학습단체 및 전업농회원 등 총 33단체 1850여 명이 전시포장을 방문해 큰 호응을 얻었다.
- 특히 지난해 전시포를 방문한 농가들은 ▲충남적응 고품질 품종의 선택과 품종특성 ▲이삭누룩병 및 이끼류 다발생에 따른 방제대책 ▲간척지 및 규산결핍답 등 불량환경 극복 재배 기술 ▲벼 친환경 재배시 시비기술 ▲특수미 등 종자 생산체계에 없는 벼 종자 확보 방법에 대한 정보를 수집, 활용한 바 있다.
- 지난해 전시된 105품종에 대한 품질 분석 결과 삼광벼의 단백질 함량이 가장 낮아 우수한 품질을 자랑했으며 친들, 평안, 화왕, 청아벼 등은 윤기치가, 현품, 만종, 일미, 청아 등은 완전미율이 우수했다.
- 도 농업기술원은 전시포 방문 시 사전에 예약(☎ 041-635-6050~6052)을 하면 비교포장에 대한 생생한 현장 설명을 제공할 방침이다.
- 도 농업기술원 이재철 답작팀장은 “벼 품종전시포는 전국적으로 보아도 매우 큰 규모로 전국의 많은 단체가 방문하고 있다” 라면서 “벼 전문가들의 생생한 현장 설명을 통해 현장애로 해결의 기회로 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출처 : 경남농업기술원

장마철 농작물 관리기술 요령

-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는 본격적인 여름철 장마에 따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작물 관리요령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최근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7월에는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흐린 날이 많고 비올 때가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따라서 벼농사의 경우 논 주위 배수구를 철저히 정비하고, 침수 상습지에는 질소질 비료를 20~30% 감량하고, 칼리질 비료를 20~30% 증시할 것과 비가 그친 후에는 물에 잠긴 논은 서둘러 물을 빼고 물을 걸러 대어 오물을 씻어내고 도열병, 흰잎마름병 등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또한 밭작물 채소의 경우는 고랑 및 배수로를 사전에 정비하여 장마기 습해를 받지 않도록 하며, 고추, 수박 등 수확 시기에 있는 작물은 비오는 시기와 겹칠 경우 서둘러서 수확해 줄 것과 만약 침수 되었을 때에는 배수 즉시 역병, 탄저병, 담배나방 등 병해충에 대한 긴급 방제를 실시하고, 요소 0.2%액을 5~7일 간격으로 2~3회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과수는 외부에서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주변 배수로를 정비하고, 강풍 동반 시 과실 낙과 및 도복 방지를 위해 튼튼한 지주를 세워 고정시켜 주고 초생재배 과원은 물이 잘 빠지도록 풀을 베어 줄 것을 당부하며 역시 비가 그친 후에는 토양이 유실된 과원은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흙을 채워주고 겹무늬썩음병, 점무늬낙엽병 등 병해충을 방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도농업기술원은 농업재해대책 기술지원실을 운영하며“여름철 장마 대비 기상과 생육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해 작목별, 단계별로 기술 지원함으로써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전북농업기술원

■ 태풍에 대비하는 자세!

- 농업시설물 안전점검 철저히 -

- 농가가 가장 피하고 싶은 여름철 기상재해가 바로 태풍이다. 대부분의 태풍은 시기적으로 농작물이 한창 자라는 시기에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이든 간접이든 영향권에 든다면 피해 규모가 매우 큰 것이 특징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 직간접 영향을 미친 태풍은 거의 없었지만, 태풍의 진로는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항상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강양수)은 태풍과 폭우 등 기상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농업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하고, 현장기술지원활동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 시설하우스 중 유리온실은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시설이어서 태풍에 의한 피해는 적은 편이지만 강풍이 불 때 환기창이 열려 있거나 시설이 노후하여 유리가 창틀에 고정이 안됐을 때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따라서 유리온실은 장맛비와 태풍을 대비하여 환기창 개폐관리와 유리 고정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보수해야 한다. 비닐하우스는 규모가 작은 태풍에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점검과 관리가 더욱 필요한 시설이다. 비닐하우스의 피해는 주로 피복 비닐이 찢어지거나 벗겨져 날아가는 형태가 많다. 태풍과 같이 강한 바람이 불 때 피복 자재가 찢어진 틈새나 천창, 측창 개폐부가 부서진 곳으로 바람이 들어오면 바람 압력에 의해 하우스가 들떠 기초가 뽑히거나 피복자재가 낡은 곳

부터 찢어지기 시작해 비닐하우스 전체가 피해를 입는다. 따라서 피복재가 찢어진 곳은 비닐접착용 테이프로 보수하고, 출입문과 창들의 개폐부위를 잘 살펴서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기팬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기팬을 작동시켜 내부 공기를 빼주면 내부 압력이 줄어들어 비닐하우스가 들뜨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만약, 바람이 너무 강해 골조가 파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피복자재를 찢어 골조를 보호하는 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 축산시설 중에는 비닐하우스 형태의 파이프골조에 보온덮개 등을 덮어 만든 간이형 축사가 태풍 등 자연 재해 시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런 축사는 강한 바람이 불 때 최소한의 환기를 위한 인입구 이외의 불필요한 부분은 모두 견고하게 밀폐하고, 배기 팬이 설치된 축사는 배기 팬에 의해서만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리고 축사 시설은 높은 가스농도 등 내부 환경이 열악해 금속의 부식이나 열화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어, 구조 자체가 쉽게 약해질 수 있으므로 버팀기둥이나 브레싱 등 보조적인 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해서 바람에 의해 파손되지 않도록 사전에 보수를 하거나 교체해 주어야 한다.

* 출처 : 경남농업기술원

7. 정책동향

◆ 국제농업박람회 100일 앞…성공 결의

- 조직위, 6일 ‘우리의 농UP, 희망의 농UP’ 다짐행사 -
- 국제농업박람회조직위원회가 우리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농업의 비전을 보여주는 2015국제농업박람회 개최 100일(7일)을 앞두고 6일 ‘국제농업박람회 D-100 성공 기원 결의행사’를 개최했다.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열린 이날 결의행사에는 최경주 농업기술원장(조직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조직위 직원들과 농업기술원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 이날 행사는 최경주 원장의 당부사항과 박람회 추진사항 보고, 성공 개최 결의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우리의 농UP, 희망의 농UP’을 위한 박람회 성공 개최를 다짐했다.
- 조직위는 메르스 사태와 U대회 개최 기간 중임을 고려해 대규모 실외행사보다는 내부 결의 다짐 행사를 통해 박람회 D-100일을 기념했다. 앞으로 남은 100일동안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행사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2015국제농업박람회는 오는 10월 15일부터 11월 1일까지 18일간 나주 산포면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일원에서 열린다. 조직위는 70만 명의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
- 농업의 6차 산업화 현황 등 창조농업 사례를 집약해 지속가능한 생명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보여주는 ‘창조농업의 장’, 농업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힐링농업의 장’, 국내외 농업의 흐름을 소개하고 농업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교류홍보의 장’, 농산물을 직접 재배하고 수확하는 ‘체험학습의 장’ 등 모두 4개의 주제로 이뤄진 12개 전시관을 마련해 농업의 가치와 미래 농업 비전을 선보인다.

- 특히 농업을 체험할 기회가 적은 도시지역 어린이와 청소년이 농업과 농촌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농업 관련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동물농장은 기존 박람회와 달리, 각종 동물들을 직접 보고, 만지며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어린이를 비롯한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개국 350여 기업과 기관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는 2015국제농업박람회에 농어촌공사·농촌진흥청·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대한민국 농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들과, 국내 우수 농기자재 업체들이 이미 참가를 확정했으며, 지금까지 89%의 업체 유치가 완료됐다.
-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고령화 등의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국내 농가의 판로 확대를 위해 국내외 바이어 초청 규모를 확대하고, 1대1 비즈니스 매칭, 국내외 유통업체들과의 MOU 체결 등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 이밖에도 한국유기농업학회에서 주최하는 국제 유기농 심포지엄 등 9개의 국내외 농업 관련 학술행사와 라디오 인기 프로그램인 ‘강석·김혜영의 싱글벙글 쇼’ 등 박람회 분위기를 고조시킬 내실 있는 부대 이벤트 등을 개최해 관람객과 함께 즐기는 행사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 국제농업박람회조직위 관계자는 “국제농업박람회를 통해 친환경·유기농업의 메카인 전남농업의 위상을 드높이고, 우리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통해 우리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남은 100일 동안 박람회를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

◆ “금년 상반기 농지연금 가입 크게 늘어”

- 전년 동기대비 가입은 35%, 지원액은 55% 증가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상반기 기준 농지연금 사업실적을 점검한 결과, 농지연금* 가입 등 사업실적이 대폭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

- 농지연금 가입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35% 증가하였으며, ‘11~’15년 상반기까지 총 4,760건 가입하였다.

- 신규가입자의 지원 총액도 가입 증가 및 담보농지 감정평가율 상향 조정(‘15.1 : 70→ 80%) 등으로 55%가 증가하였다.

* 지원액 : (‘14. 上) 1,676 → (‘15. 上) 2,601백만원(55.2% ↑)

* 총 지원액(기존가입자 포함) : (‘14. 上) 133 → (‘15. 上) 188억원(41.3% ↑)

- 한편, 신규 가입자의 월 평균 연금 지원액은 105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신규가입자 보다 8.3%가 증가하여 노후생활 보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月 평균 지원액 : (‘14. 上) 968 → (‘15. 上) 1,048천원(8.3% ↑)

- 농식품부는 그 동안 가입요건 완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 왔고, 타킷 중심의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여 가입률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그 동안 제도개선 사항 >

- * ('14) 이자율 인하(4→ 3%),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공시지가 100% →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율 70%중 가입자가 선택), 가입비(담보 농지 가격의 2%) 폐지, 가입연령 조건완화(부부 모두 만 65세→가입자만 65세 이상)
- * ('15) 담보농지 감정평가율 상향(70→ 80%), 가입시 감정평가 수수료 등 부대비용 납부편의 제공(농어촌공사 先 대납 後 징수) 등

□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노후생활 안정에 많은 도움(아래 사례 참조)이 된다'고 하면서, 고령농업인들에게 농지연금을 많이 가입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가입사례 >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이○○씨(76세, 영농경력 24년)는 '찾아가는 고객센터'에 의한 홍보를 통해 최근 농지연금에 가입(종신형, 농지가격 및 면적 : 210백만원, 3,729㎡), 매월 약 102만원 수준의 연금을 수령하게 됨

※ 가입상담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고객센터(☎ 1577~7770)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국내쌀-수입쌀 혼합 유통 강력 단속한다

- 전남도, 처벌 강화한 개정 양곡관리법 7일 시행 따라 8월 28일까지 -

- 전라남도는 국내쌀-수입쌀 혼합 유통·판매 행위의 처벌 규정을 강화한 개정 양곡관리법이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 개정 양곡관리법은 쌀 관세화 대비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국산쌀과 수입쌀, 혹은 생산년도가 다른 양곡의 혼합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 특히 혼합 금지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 위반 시 제재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했다. 혼합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영업소 정지, 폐쇄명령이 적용된다.

- 양곡의 거짓, 과대 표기·광고 역시 현재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시가 환산가액의 5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 이와 함께 수입쌀 유통업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통해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방안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부 합동 특별단속도 7일부터 8월 28일까지 실시한다.
- 김태환 전라남도 식품유통과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처벌)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도내 미곡종합처리장(RPC), 정부양곡도정공장, 쌀가공업체 등을 철저히 지도·단속해 건전한 쌀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전라남도

◆ 농특산물 가공 체험 확대로 농촌관광 활성화

- 전남6차산업화지원센터-전남체험휴양마을협의회, 업무협약 -

- (재)전남발전연구원 전남농업6차산업화지원센터(센터장 장덕기)와 (사)전남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회장 이윤배)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 4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두 기관은 농특산물 가공체험을 활용한 6차산업발전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마을별 농특산물을 활용한 특색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맞춤형 컨설팅(현장코칭) 사업을 추진해 체험휴양마을의 가공상품 6차산업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마을의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할 농특산 가공식품 자원 기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한 6차 산업 상품화에 성공한 우수 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해 체험프로그램을 직접 실습하는 등 실제적인 현장 전문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 또한 가공상품 개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올 하반기 체험마을 상품 품평회를 개최해 우수상품에 대해 대형마트, 인터넷몰 입점 등을 추진, 홍보와 판로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 이는 최근 농촌관광 트렌드가 단순한 영농체험에서 벗어나,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특산물 가공체험과 판매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마을의 특성을 반영한 대표 가공상품 개발이 농촌관광의 부가가치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 주순선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촌관광은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상품 개발이 가능한 성장산업”이라며 “전남6차 산업화지원센터와 전남체험휴양마을협회의 연계사업 추진으로 그동안 농촌관광에 대한 정보 부족과 마을 상품화 미흡으로 겪었던 체험마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

◆ 양파 「경계경보⇒심각경보」, 마늘 「경계경보」 발령

- 농림축산식품부(이동필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7월 이후 양파·마늘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수급불안도 지속됨에 따라 제4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긴급 개최(' 15.7.7) 하였으며,
- 심의 결과, 현재 수급조절매뉴얼상 「경계경보」 단계인 양파는 「심각경보」로, 「주의단계」인 마늘은 「경계경보」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 수급조절위원회는 ‘15. 7월 상순 현재 매뉴얼 상 양파가격은 「심각단계」 이고,

* 양파 도매가격 : (5월) 731원/kg → (6월) 996 → (7.상) 1,221

○ 마늘은 「주의단계」 이나 7월 중순 또는 8월 이후 「경계단계」 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마늘 도매가격 : (5월) 3,540원/kg → (6월) 3,942 → (7.상) 4,800

* 마늘 6.중순 이후 도매가격: (6.중) 3,811 → (6.하) 4,480 → (7.상) 4,800

< 양파·마늘 위기단계별 도매가격 : 상승구간 >

구분	양파					마늘				
	5월	6	7	8	9	5월	6	7	8	9
심각	1,399	1,012	1,034	1,107	1,124	4,953	4,858	5,517	5,215	5,491
경계	1,250	907	956	1,035	1,045	4,582	4,395	4,985	4,595	4,781
주의	1,010	801	877	962	967	4,211	3,933	4,452	3,975	4,070
중양(안정)	771	696	799	889	889	3,840	3,470	3,920	3,355	3,360

□ 7월 농업관측(KREI) 결과, 양파·마늘 생산량이 추가 감소함에 따라 수급상 부족량이 양파는 140천톤에서 154천톤, 마늘은 41천톤에서 42천톤으로 늘어났다.

○ 특히, 양파·마늘 농가의 의견과 통계청이 발표한 생산면적 (평년대비 18~20%, 7.24일 통계청 생산량 발표예정) 고려시 가격급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양파·마늘의 위기단계 상향조정이 결정되었다.

구분		5월관측	6월관측	6.15속보	7월관측
생산량 (KREI)	양파	1,327천톤	1,240	1,218	1,204
	마늘	313천톤	298	290	289
수급상 부족량	양파	△35천톤	△118	△140	△154
	마늘	△17천톤	△33	△41	△42

□ 아울러, 수급대책은 지난 6.23일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8. 해외 농업정보

◆ 러시아 밀가격, 수출관세에 대한 우려로 보합세

애널리스트들에 따르면, 지난주 러시아 밀 가격은 긍정적인 밀 작황이 전망됐음에도 불구하고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밀 수출관세에 대한 우려가 높아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만약 내달 러시아의 루블화 약세가 나타난다면 러시아의 밀 수출관세는 이미 계약된 건의 수익에 우려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IKAR 농업컨설팅회사에 의하면 지난주 말, 러시아의 밀 신곡(단백질 함량 12.5%) 흑해선도 가격은 FOB기준 톤당 190달러로 3주 연속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한 상인은 “최근 밀 작황전망의 개선추세로 밀 시장이 낙관적이었으나, 수출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의 우려는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고 전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러시아는 6월 30일까지인 유통년도 2014/15년 기간 동안 밀 20.9백만 톤을 포함하여 곡물 29.4백만 톤을 수출했다.

한편, Sovecon에 따르면 3등급 밀의 국내산 가격도 공장도 가격 기준 톤당 9,400루블(174달러)로 수출가격과 마찬가지로 전주대비 보합세를 보였다고 한다. IKAR에 따르면, 최근 주간 러시아의 밀 작황은 상향전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은 건조한 기후가 지속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2015년 러시아의 밀 수확전망은 1백만 톤 감소한 55-59백만 톤으로 하향조정되었다. 그러나 Sovecon은 러시아 남부 및 중부 지역이 평소보다 온화한 기후이긴 하나 밀 시장의 확실한 부정적인 효과를 논의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농업부가 국내시장에서 곡물을 구매하는 ‘재고보충 프로그램’도 최근 수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농업부는 지난주 곡물 46,800톤을 포함하여 지난 가을 재고보충 프로그램 착수 이후 1.08백만 톤의 곡물을 구매했다고 한다. 한편 러시아의 봄 곡물파종은 거의 완료되어 6월 11일 기준 30.6백만 헥타르에 봄 곡물파종을 완료했으나 이는 전년대비 0.5백만 헥타르 감소한 수준이다.

한편, Sovecon에 따르면 러시아 국내 해바라기씨 톤당 가격은 250루블 상승한 20,800루블이고 흑해지역의 원유 해바라기 오일 FOB 톤당 가격은 10달러 상승한 850-860달러라고 한다. 또한, IKAR의 러시아 남부지역 백설탕 가격지수도 톤당 700.5달러로 전주대비 8달러 상승했다. 러시아 설탕생산자연합에 따르면,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는 7월에도 원당의 수입관세를 톤당 250달러로 6월과 변화없이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시장곡물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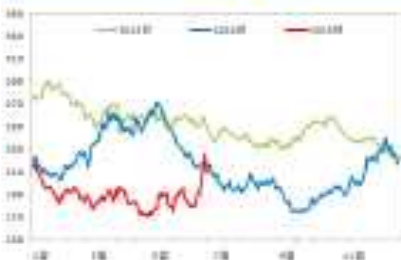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5. 7. 8.(시카고 선물거래소)

세계 경제 위기 우려에 주요 곡물 가격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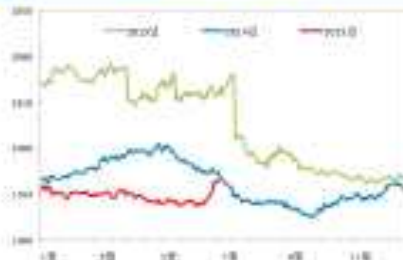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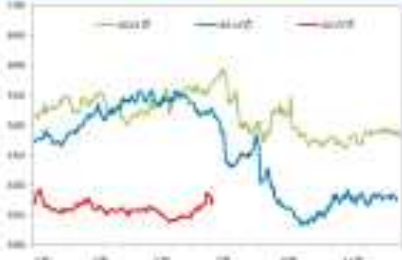
밀 선물시장 상황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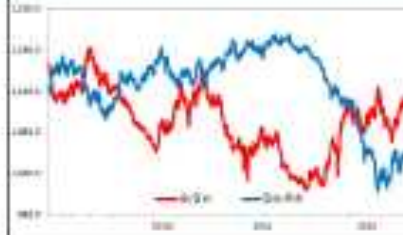
관련동향

- 주요곡물 특이사항 없는 소식에 포함 마감.
- WTI 유가는 미 달러화 강세, 중국 중시 불안 등의 영향을 크게 받아 하락한 반면, Brent 유가는 이란 핵협상 연기 소식에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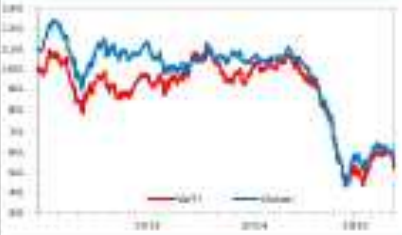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곡물수출가격 (FOB)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환율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밀	244	▲0.4%		원/달러	1126.3	▲0.6%
	옥수수	193	▼0.5%		달러/유로	1.1055	▲0.2%
	대두	409	▼1.4%		WTI	52.33	▼0.6%
	쌀	381	-		Dubai	55.16	▼4.8%

주) 1) 밀(US SRW Grade), 옥수수(US S7C Grade), 대두(US Grade), 쌀(Thailand 100% Grade B), WTI(8월물), Dubai(연물)

2) 기준일은 '15.7.8(수출가격), '15.7.7(환율), '15.7.7(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리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당해년도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9. 고소득 농업사례

■ 전남 유기농 선도농가를 찾아서—함초롬이슬머금은매실 이옥분 대표

- 탕글탱글한 노란 '황매실'에 장인정신 담아 -
 - 광양 백운산 정기 받은 500m 고지대서 유기농 재배 -
 - 생과 · 원액 · 식초 · 씨베개 등 다양한 제품 가공 · 판매 -
- 48년이란 오랜 세월동안 매실농사에 전념, '매실 장인'이라 해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이가 있다.
- 주인공은 광양시 옥곡면에 위치한 '함초롬이슬머금은매실' 이옥분 (70) 대표.
- 긴 세월 매실농사에 매진한 것 뿐만 아니라 초기부터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법을 유지, 지난 2011년 유기농 인증을 통한 매실 유기농 재배를 선도하고 있다.
- 이 대표는 생산량 증대를 통한 매출 향상이 아닌 내 자녀, 손자들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소량이더라도 매실을 먹는 소비자들의 건강을 생각해 고품질의 알찬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매실농사를 시작한 것은 지난 1967년부터라고 한다. 당시 22세로 결혼한 후 시댁에서 하고 있던 매실, 복숭아, 자두 등 과수농사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됐다.
- 1960년대만 하더라도 매실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 대규모 재배가 아닌 소규모로 재배해 동네 주민들에게 조금씩 판매하는 정도였다고 한다.
- 이전까지 자두와 복숭아, 매실을 함께 재배했지만 매년 병해충의

피해가 이어져 지난 2000년부터는 상대적으로 병해충 내성이 강한 매실만을 재배, 현재 1.3ha 규모의 매실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 2006년 무농약인증을 시작으로 이 대표가 매실에 대한 유기농 인증을 받은 것은 지난 2011년이다.
- 처음 매실농사를 시작하면서부터 화학비료는 사용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재배를 했지만 인증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 초기에는 유기농법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유기농 인증제가 시작된 이후에는 인증을 받기 위해 무농약재배, 친환경재배, 유기농전환기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 이 대표의 농장에서 재배하고 있는 매실나무는 일반 농가에서 재배하는 과수와는 다른 품종이다. 복숭아나무에 매실 접을 하는 과정을 50년 가까이 진행해 우수 묘목을 만들어내 매실의 크기가 다른 수종에 비해 크고 병충해에도 강하다고 한다.
- 아직 정확한 품종을 확정하지 못해 조만간 정식으로 품종 등록을 할 계획중에 있다.
- 광양은 매실로 유명한 지역이다. 그만큼 매실 재배농가가 많다.
- 최근에는 광양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배지역이 늘어나 매년 공급과잉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 지난 2013년을 정점으로 매년 가격 하락으로 대부분의 매실농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대표는 이에 굴하지 않는다.
- 대부분의 매실농가는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매실이 완전히 익기 전인 '청매실'을 수확한다.

- 하지만 이 대표는 청매실이 아닌 황매실을 수확한다.
- 황매실은 청매실 수확기인 6월 초가 아닌 6월 말부터 수확한다. 수확시기가 늦다보니 낙과로 인한 손해도 커, 청매실로 수확하는 것과 비교해 30% 정도밖에 수확량이 되지 않는다.
- 이때문에 1년에 황매실 수확량은 무가공 2t, 가공 판매용 4t 등 총 6t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 하지만 이 대표가 황매실 수확을 고집하는데는 황매실의 품질때문이다. 노랗게 익은 상태에서 수확하기 때문에 청매실과는 달리 짙은 맛이 없고 높은 당도와 진한 향이 난다는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또 황매실에는 구연산이 청매실에 비해 14배 이상 높다.
- 이렇듯 이 대표는 눈 앞의 이익보다는 자신이 수확한 매실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고 소비자의 건강과 신뢰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매실 장인정신’을 지켜나가고 있다.
- 이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함초롬이슬머금은매실’은 온라인 판매를 위해 지난 2006년 홈페이지(www.hamchorom.co.kr)를 개설하고, 2010년에는 광양시 진상면에 165.3m² 규모의 가공공장을 건립해 다양한 제품을 가공해 판매하고 있다.
- 초기 판매망을 넓히는 과정에서 식품위생법 등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소비자와의 신뢰 관계로 모든 것을 이겨냈다.
- 매실 재배와 수확뿐 아니라 가공제품 생산·판매까지 하게 됨에 따라 이 대표의 딸인 문미경(47)씨 부부가 농장 경영에 참여하게 됐다.
- 문씨가 매실농사를 돕기 시작하면서 재배뿐 아니라 판매망도 다양화 시키고 있다.

- 400여명의 고정고객들에게는 주문을 통해 선별 과정을 거치지 않은 황매실을 직거래 판매하고 있다. 시중 가격보다 2~3배 높은 10kg 당 8만원에 판매하고 있지만 품질의 우수성때문에 매년 구매가 늘고 있다.
- 가공제품으로는 식초인 황매초, 원액인 황매수와 함께 매실씨 베개, 매실비누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 48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매실농사에 전념하고 있지만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하는 유기농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유기농 재배 저변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다.
- 직거래 10년째인 내년에는 도시 소비자들을 초대해 농장에서 직접 ‘팜파티’도 계획중에 있다.
- 매실 유기농 재배의 가장 큰 적은 ‘복숭아씨살이좀벌’이다. 매실 안의 딱딱한 핵이 생성되기 전 알을 낳아 매실이 익을때 쫌 애벌레가 핵을 뚫고 나와 매실을 썩게 만든다.
- 최근 그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고 매실 낙과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하지만 신규 해충이라 농업기술원 등에서도 아직 방제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발생 초기 화학약품을 사용하면 막을 수 있지만 유기농 재배농가로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 재배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복숭아씨살이좀벌’ 이라면 판매에서는 소비자들의 편견이 큰 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유기농은 ‘사기’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가격만 비싸게 받을뿐 일반 재배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하지만 유기농 재배는 영양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과실 크기도 상대적으로 작고 화학약품을 배제하기 때문에 색감도 투박하지만 영양만큼은 일반재배 매실이 따라올 수 없다.
- 이 대표는 수확량이 적을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인식도 부족해 유기농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여러번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고 있다고 말했다.
- 이 대표는 "농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기농에 대한 교육이 소비자들에게도 필요하다"며 "소비자들이 정확히 유기농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상호 신뢰가 쌓여 유기농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 출처 : 광남일보

■ 뉴질랜드서 역이민, 울포서 구찌뽕 농사 노한범씨

- “보성을 생명농업의 중심으로 만들자” -

- 전남 보성 울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노한범씨(68)는 ‘생명농업’의 ‘전도사’이다. 생명농업은 자연농업으로 생태계를 복원하고 건강에 유익한 농산물을 생산하자는 개념이다. 자연재배보다 상위개념의 농업이다. 자연재배는 무농약, 무비료, 무가축분뇨, 무퇴비를 이용한 농사이다. 생명농업은 자연재배를 포함, 환경을 복원할 수 있는 모든 생활방식을 의미한다.
- 노씨는 지난 4월8일 보성자연농업영농조합법인을 만들었다. 40여 명의 회원이 가입한 상태다. 노씨는 이 조합을 통해 보성을 생명농업의 중심으로 가꿔나갈 계획이다. 자연재배를 통해 몸에 좋은 각종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모든 삶의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영위하는 것이 그의 바람이자 목표다.

- 그는 더 나아가 보성군과 힘을 합쳐 보성을 생명농업과 생태해양 문화, 지역전통문화가 어우러진 신문명의 고장으로 가꿔가겠다는 야심찬 구상을 지니고 있다. 땅과 바다를 존귀하게 여겨 깨끗하게 가꾸고, 보성이 지닌 아름다운 문화와 역사를 이에 접목시킨다면 보성이 청정한 환경과 정신적 가치를 지닌 ‘생명과 기쁨의 고장’이 될 것이라 믿고 있다.
- 노씨는 건강과 관련된 생명농업의 지향점은 ‘치유 먹거리 생산’이라고 강조한다. 치유 먹거리는 안전한 먹거리보다 상위개념이다. 그는 무분별한 미숙성·급숙성 퇴비사용이 한국농업을 망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유전자변형을 이용한 사료를 먹이고 밀집·공장 식으로 사육되고 있는 축산시설의 퇴비를 이용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땅과 건강을 모두 해친다는 것이다.
- 그는 지난 2006년 뉴질랜드에서 역이민을 왔다. 10년 동안 살던 뉴질랜드를 뒤로 하고 보성 읍포의 야산 3만평을 구입해 동지를 틀었다. 가시덩굴만 가득하던 산을 가꾸고 또 가꿔 6천여 평에 구찌뽕을 심었다. 500평에 감나무도 심었다. 물론 농약이나 퇴비를 사용하지 않았다. 잔손이 많이 가는 구찌뽕 농사이지만 지난해에는 2.4t을 수확했다. 부인 정복희씨와 둘이서 그 모든 일을 다해내고 있다.
- 노씨는 외로운 환경지킴이 노릇을 하고 있다. 그는 야산과 밭에 너무도 많은 폐비닐이 파묻혀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폐비닐을 묻거나 태우는 주변 사람들과 다툼도 잦았다. 욕설과 함께 먹살을 잡히는 봉변을 당하기도 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지금은 많은 농민들이 그의 뜻을 받아들여 폐비닐을 모두 수거해 처리하고 있다.

- 노씨가 보성 읍포에 정착한 것은 과거에 별교상교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했던 인연 때문이다. 아내 역시 보성에서 초등학교 교사생활을 했다. 영어교사를 그만두고 서울에서 항공기와 반도체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외국회사에서 생활하다가 1995년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었다. 그러던 중 한국으로 돌아가 생명을 가꾸는 농사를 짓고 싶다는 생각에 역이민을 결정했다.
- 노씨는 많은 이들이 생명농업에 동참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경기도 시흥에서 귀농한 젊은이가 마을 곳곳에 꽃씨를 뿌리고 무궁화를 심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큰 힘을 얻었다고 한다. 그는 흙을 아끼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 신음하고 있는 환경을 다시 살려내자고 호소하고 있다. 생명을 살리는, 자존심 강한 농부가 돼보자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다.

* 출처 : 남도일보

10.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2015년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신청

- 신청기간 : 6. 18. ~ 8. 17.(2개월)
- 신청대상 품목
 - 피해보전직불금(9개) :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시설포도, 닭고기, 밤
 - 폐업지원금(5개) : 체리, 노지/시설포도, 닭고기, 밤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신청대상 품목을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자
- 지급단가
 - 피해보전직불금 : 대두ha/469천원, 감자ha/2,142천원, 고구마ha/45천원, 체리ha/2,600천원, 멜론ha/141천원, 노지포도ha/1,133천원, 시설포도ha/3,512천원, 닭고기kg/19원, 밤ha/410원
 - 폐업지원금 : 체리ha/33,140천원, 노지포도ha/58,980천원, 시설포도ha/87,410천원, 닭고기(마리)/561원

◆ 2016년도 주요 산림소득사업 공모 신청

- 기 간 : 7. 15. ~ 9. 4.(52일간)
- 공모규모 : 3개 사업/84개소/506억원(국비 209, 지방비 119, 자부담 178)
 - 유통센터 6개소/66억원, 생산단지 60개소/350억원, 복합경영단지 18개소/90억원
- 신청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 농업회사 등),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등)
- 규 모 : 50여개 부스(도별 각 25개씩, 시군, 농협 등 단체)

◆ 제2회 농촌재능나눔 홍보공모전 작품 접수

- 공모주제 : 농촌재능나눔을 통한 농촌공동체 활성화
- 공모기간 : 2015년 6월 15일 ~ 9월 30일
- 공모분야 : 동영상(UCC), 사진
- 참가자격 : 일반인 및 대학생
 - * 스마일재능뱅크(www.smilebank.kr) 회원가입
- 접수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www.smilebankcontest.co.kr) 접수
- 시상규모 : 26점(동영상 9점, 사진 17점)
- 시 상 식 : 2015년 11월

주간
42 전남농업정보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우) 534-700

Tel. 061-286-6253

Fax. 061-286-4782

